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

여형남¹, 김영경^{2*}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employment Experiences of the Young-old

Hyeong-Nam Yeo¹, Yeong-Kyeong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esh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의 본질과 의미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지지적 간호중재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은퇴한 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60세에서 74세 사이의 한국인 노인 7명을 편의표본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심층 인터뷰와 테이프 녹음을 사용하여 2016년 6월에서 8월까지 자료를 수집했다. 인터뷰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도출되었다; 삶의 변화에 혼란스러움,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함. 새로운 변화에 적응함, 새로운 인생이 열림. 결론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간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간호사는 임상에 국한된 업무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걸친 확장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초기 노인 은퇴자를 포함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시 은퇴 이후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시스템과 지속적인 간호중재에 필요한 간호지침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plan for the young-old by identifying the essence and meaning structure of re-employment experience after retirement.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of seven Korean young-old individuals from 60 to 74 years of age who had re-employment experience after retirement in C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August of 2016 based on an in-depth interview and tape-recording.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developed by Giorgi.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constituents; confusion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life, recognizing that it is not easy to work again, adaption to new changes, opening a new lif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at nurses, wh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lderly nursing because of the increase in average life expectancy and overall elderly population, take care of extended tasks throughout the society, away from clinical work. Therefore, a social support system and nursing guidelines necessary for continuous nursing intervention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elderly, including those at early retirement age, can be satisfied with their life after retirement.

Keywords :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Re-employment, Retirement, Young-old

*Corresponding Author : Yeong-Kyeong Kim (Catholic Univ.)

Tel: +82-10-2558-8997 email: yhn072@naver.com

Received September 13, 2017

Revised (1st October 18, 2017, 2nd November 1, 2017)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 및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으로 인하여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5년 13.1%에서 2030년 24.3%, 2045년 35.1%, 2060년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 또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생산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 이후부터 노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노인의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어 길어진 노년기 삶을 위해 경제적 안정, 건강, 활기차고 안전한 생활 등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된 노동시장과 기업의 상황으로 인해 평생직장이나 기대된 은퇴 연령의 개념이 무너짐으로써 은퇴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3]. 최근 들어 규정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강제 퇴직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은퇴 시기가 점차 앞당겨져 50대 중반이면 사회로부터 가정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4]. 이런, 조기 은퇴의 증가로 노인집단은 건강한 60세의 젊은 노인부터 거동하기 어려운 90세 이상의 노인까지 30년 이상 연령 차이가 나는,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존의 병약하고 무력한 부정적 노인상에서 탈피하여, 건강하고 독립적인 긍정적 노인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 노인상이 앞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살아가야 할 개인에게 삶의 희망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5].

은퇴는 장. 노년기에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로 인생이 전환기에 와있음을 알려주는 불연속적 사건이고 생활주기 상 노년기로 진입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하여 은퇴는 노년기 삶에 있어서 심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한다[6]. 은퇴는 은퇴자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므로[7-9], 은퇴 시기는 노동이라는 생산적 활동 시기를 축소하는 반면 은퇴 후 한정된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불안한 삶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0]. 이러한 상황과 맥을 같이 하여 노인들의 취업 욕구 또한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1].

취업에서 은퇴로의 전환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특히 조기 은퇴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은퇴 이후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은퇴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퇴가 아니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임시직,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노동기회가 이동되는 다중적·다단계적 노동이동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일단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였다 하더라도 재취업 기회나 소득창출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경우도 흔하게 관찰된다[12].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26%에서 2014년에는 31.4%에 이르며[1],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향후 경제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노인이 72%에 이르러 취업의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3]. 취업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지만[14, 15] 사회적 소속감이나 자아실현의 욕구 등도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다[16].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일하는 즐거움이었으며,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27.7%)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임금수준(23.2%), 계속 근로가능성(18.0%)순이었다[1].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은 주로 시간제 근무 업무가 많은데[1], 이는 종종 노인 노동력이 취약하다는 근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노인 재취업이 주로 시간제근무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노인 노동력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이 있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수요와 오랜 기간 노동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태 즉 건강상태를 고려한 노인 노동자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존재한다[15].

노인의 재취업과 관련된 국내 기존 연구[14, 15][18]는 노인의 성별이나 여타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재취업 관련 요인이나 노인일자리만족도 등 특정 변수를 설정하여 통계적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양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19, 20] 이들 양적인 연구들은 구직경험에 비해 몇몇 변수에 국한된 단편인 이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은퇴 후 노인들이 경험하는 재취업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 현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의 시작인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을 실제 경험자인 초기 노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재도전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지지적 간호중재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에 대한 의미를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파악하고 그 의미구조를 밝힘으로써 만족스러운 재취업을 도와 생산성 증대, 여가 활용,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호에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지지적 간호 중재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을 확인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기 위하여 Giorgi[21]의 현상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C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구주체가 되는 은퇴 후 재취업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참여자 중 은퇴 후 경과기간이 짧고 직장 재진입과 경력연장을 고려하는 대상보다는 은퇴 후 경과기간이 길고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경험치가 많은 노인으로 평균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후 은퇴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이 한번 이상 있는 자이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자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에 맞는 참여자 모집을 위해 먼저 노인일자리 센터와 시니어 클럽을 찾아 모집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하였으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참여자 선정이 불가능했다. 이후 모집안내문을 작성하여 창원시민 게시판에 부착시켰으나, 지원자가 없어 동시에 연구가 직접 주변 교회나 사회복지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목사, 실장)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모집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허락받았다. 첫 참여자는 교회 목사의 추천 받았고 처음 추천자를 심층면접 후 그 참여자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여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면담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자 소개와 연구의 목적,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할 것이며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과 연구과정 중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현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용한 휴게실이나 참여자가 가능한 휴무인 날을 활용하여 집 근처 카페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 후 면담내용은 현장기록 노트에 메모하거나 녹음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당일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기술을 그대로 필사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적인 대화와 건강관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참여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처음에 ‘은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로 시작하여 ‘은퇴 후 재취업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습니까?’, ‘재취업 과정 중 도움이 되었거나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힘들었습니까? ‘재취업 후 적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재취업 적응 후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등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는 마지막 참여자 이후부터는 유사한 개념이 도출되어 7번째 참여자와의 면담 이후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면담은 개인별 각각 1~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50분에서 90분이었다.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전화나 다음 면담 시간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CUPIRB-2016-015)을 얻은 후 수행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분석 방법 중 Giorgi[21]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면담 내용과 필사자료를 반복해서 듣고,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참여자가 표현한 기술 하나하나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은퇴노인의 재취업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면서 구분한 의미단위를 학문적용어로 전환하여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고려하면서 일관성 있는 기술 문으로 통합하여 의미구조를 확인하였다.

2.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22]의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진실성(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및 중립성(neutrality)의 측면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2명에게 분석 내용을 읽어주었고, 본인이 진술한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의 경험 내용과 동일하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시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의 결과에 대한 적합성과 제 3자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결과가 의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초기 노인 2명에게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분석된 연구결과와 의미를 공감한다는 것으로서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질적연구 및 노인 간호에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면담자료 분석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분석한 의미에 관하여 연구자들 간에 지속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은퇴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자신의 가정, 편견, 선 이해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면담 내용을 들으면서 연구자의 선입견이 반영된 진행이 없었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2.6 연구자의 민감성 확보

본 연구자는 박사 과정 중 ‘질적연구방법론’, ‘간호이론’, ‘간호이론개발’ 교과목을 이수하여 질적연구와 이론개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여 근거이론방법론을

다른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수준 높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질적연구와 관련된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에 참석하였고 6개월 이상 부울경 질적연구 콜로키움에 참석하여 질적연구에 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였다. 신뢰 관계 형성 및 면담 기술에 대하여는 지도교수의 지도로 지속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전반에 걸쳐 학술 및 비학술 문헌을 통해 다양한 변수와 개념에 관심을 두고 연구자로부터 추출한 자료와 연구자 자신의 지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론적 민감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구조화하여 본질적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현상학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7명의 참여자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하여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4개의 구성요소와 11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은 ‘삶의 변화에 혼란스러움’, ‘다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함’, ‘새로운 변화에 적응함’, ‘새로운 인생이 열림’ 등으로 나타났다(Table 1).

3.1 삶의 변화에 혼란스러움

은퇴 후 삶의 허무함, 경제적 압박감, 부부간의 마찰, 삶의 무료함,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가정 및 사회에서의 외로움과 고립감,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독립적인 생활 추구를 위해 재취업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들은 은퇴 전 직장에서 일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은퇴 후 주어진 일없이 많은 시간을 무료 해하며 삶의 허무감을 느끼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은퇴 이후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하였고 부부간의 마찰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은퇴 이전과 달리 원만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어 준비되지 못한 삶의 변화에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었다.

Table 1. Sub-constituents and Constituents of Retirement Experience for the Young-old

Sub-constituents	Constitu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nding meaningless time ▪ Life is not good ▪ Feeling loss of presence due to role change in home and society 	Confusing by the change of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derly Jobs Limited ▪ Feeling a sense of heterogeneity in the new work environment ▪ Experience of impersonal relationship 	Recognizing that it is not easy to work ag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ing a new relationships ▪ Trying to lower me 	Adaption to new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ding a vitality of life ▪ Caring health more and more ▪ Restoring self-esteem and presenc 	Opening a new life

3.1.1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냄

참여자들은 변화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은퇴를 맞이 함으로써 헌신적으로 일한 직장에서 물러남이 실감이 나 지 않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다. 은퇴 전에는 직장 에서 일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은퇴 후 주어진 많은 시 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많은 시간을 무료 해하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은퇴라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내가 은퇴하고 나니 허 무하네요. 남 일인 줄 알았는데……. 아직 일할 수 있 는 젊은 나이인데 일자리가 없어졌다 생각하니 이제 많은 시간을 뭘 하며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참여자 1)

그래도 27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청춘을 바쳐서 일 한 곳에서 나와 그냥 한순간에 일자리가 없이 집에만 있 으려니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여자 2)

3.1.2 원만하지 않은 생활

참여자들은 은퇴 이후 줄어든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 나고 아직도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부부간의 간섭이 많아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지속적인 마찰 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전과 달리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 활을 겪게 되었다.

예전에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다보니 서로 부

딛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같이 있는 시 간이 많아지다 보니 그냥 내가 미웠는지 누워있어도 잔소리, 하는 행동 마다 잔소리를 하니 싸울 수밖에 …… (참여자 2)

딸 공부는 아직 안 마쳤고 아들 녀석도 결혼 준비해야 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고 나가야 할 돈은 많고 그 냥 쉬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여자 3)

집에서 쉬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들어오는 수입 은 적고 나가는 금액은 비슷하니……. 사람이 소심해 지네요. (참여자7)

3.1.3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변화로 존재감 상실을 느낌

참여자들은 은퇴 후 자녀를 출가시키지 못함에 대한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부양을 다 하지 못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변화로 직장에 서 유지해오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부담스러웠으며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뒷방 신세를 진다고 생 각하여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출가한 자녀들과의 교류가 적고 가정에서도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고립 감으로 가족행사에도 움츠러들게 된다.

딸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울산으로 시집가서 잘살고 있 고, 아직 시집 안 간 딸자식이 있는 데 내가 직장에 있 을 때 시집을 보냈으면 하객들도 많을 거고 또 내가 공장장으로 있을 때하고 그냥 직장 없이 있을 때하고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이 일도 언제까지 할 지

는 모르지만 막내딸이 시집갈 때까지는 해야 될 건데 걱정이네요. (참여자 2)

그리고 부서장들 모임 있잖아요, 은퇴해도 그 모임에 참석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근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사람들과의 친분도 어렵더라고요. (참여자 4)

가장이 아무 일 없이 집에 있으려니 자존심이 상하고 가족 보기에 나 스스로 무능해 보이고... 원래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뭐든 할 수 있고 가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참여자 7)

3.2 다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함

참여자들은 은퇴 이후 삶의 의미처럼 느껴졌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노인취업의 한계를 깨닫는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건강하지 못해 직장을 가지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건강치 못해 재취업한 직장에서 쫓겨날까 불안해하였다. 또한, 이전 직업에 대한 선입견으로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전 직장과는 다른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이질감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통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3.2.1 노인일자리 제한

참여자들은 초기 노인인으로 아직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이전 직장에 대한 선입견과 남녀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재취업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건강하지 못하므로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재취업 후 새로운 직장에서 건강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여자는 은퇴 후 다시 취직하는 게 한정된 것 같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여자라서 힘쓰는 걸 할 수 있나, 그래도 남자들은 경비라던가 기술직이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워요... 단기제로 일하는 일자리는 솔직히 금액도 적고 아직 젊은 노인들은 할 수 있으면 소속되어 안정감 있게 일하는 게 좋지. 그런데 노인들이라고 직장에서는 피하는 게 아쉬워요. (참여자 1)

집사람 소개로 문성대학 경비직에 이력서 작성해서 면접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람을 보더군요. (참여자 3).

집에 있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부위가 우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라고 꾸준히 치료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약을 주더군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파보니 건강이 최고라는 중요성을 느꼈죠. 솔직히 지금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고 아픈 사람 받아 줄 직장도 없죠. (참여자 7)

3.2.2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이질감을 느낌

참여자들은 노인 근로여건의 열악함과 은퇴 전 일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무시하는 행동 등으로 인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아픈 사람도 많고,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환자들도 막대하기도 하고 토요일도 근무하러 나가야하고 보기 하고는 다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참여자 1)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적인 체계에서 일할 때와 정말 다르지요. 군대는 계급으로 모든 일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데 사회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반대 아닌 반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하고 안 맞고 못마땅하면 틀린 거지. (참여자 3)

3.2.3 비인격적인 관계의 경험

참여자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연장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적절함과 나이는 많지만 일의 어눌함으로 인해 직장 내 젊은 세대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익숙한 상급자 역할을 포기하고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반장이라는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서 나왔어요, 무슨 남자가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사람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지 눈에는 청소하는 우리가 자기 발바닥 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일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참여자 1)

여자들만 시기, 질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들도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하지도 안 한말들로 오해하고 나를 힘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하고 그곳을 그만뒀죠. (참여자 3)

경비직은 나 자신을 버리고 낮춰야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이틀 보고 안 볼 사람들도 아닌데 참 이상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일하다 그만뒀죠. (참여자 5)

3.3 새로운 변화에 적응함

참여자들은 재취업 후 직장 주변인의 인품, 본인의 인품과 기본적인 성실성, 신뢰기반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재취업에 적응하게 된다. 또한,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을 버리고 잘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로 포용하고 융화하는 현명한 대처를 통해 재취업에 적응하게 된다.

3.3.1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

참여자들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인정을 받게 된다. 상사와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해와 포용력으로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직장 내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직장생활에 적응하게 된다.

주인어른이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성격이 잘 맞고 서로 배려하면서 일하니 재미있고 좋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 주고 그만큼 신용을 쌓으니까 믿어주고 식구처럼 대해 주는 게 나로서는 너무 고맙지. 주인집 자식들도 서울에 사는데 명절이 되면 꼭 선물 챙겨서 인사도 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플때 주인이 안부 물어주고 서울에 있는 주인 아들이 전화 와서 몸이 어떤지 물어보고... 신랑이나 내 딸년보다 낫더라고요. 주인 사장이 나를 챙겨주니 너무 고맙고 나도 내 집안 일 같이 더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참여자 1)

3.3.2 나를 낮추려고 노력함

참여자들은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권위나 체면으로 대우나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이전의 나를 내려놓고 변모 시킴으로써 재취업에 적응하게 된다.

예전 직장에서의 대우를 바라면 큰 오산이고, 나이가 많다고 대접받을 거라는 것도 착각이고,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젊은 사람한테 굽실거리며 인사해야 하고, 싫은 소리 들어야 하고, 한 번씩 마음 상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한 조직에서 지시 하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걸. 버려야죠. (중략)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 느끼게 될 거라는 거지, 자꾸 과거에 연연해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참여자 2)

3.4 새로운 인생이 열림

참여자들은 새로운 일을 통하여 삶의 활력소를 되찾게 되며, 이전보다 건강관리에 더 힘쓰고, 새로운 일을 통해 자존감과 존재감을 회복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고 삶의 활력소를 되찾게 된다.

3.4.1 삶의 활력소를 찾음

참여자들은 무기력한 삶 속에서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즐거움과 수입을 통한 경제적인 여유로움으로 한동안 느껴보지 못한 삶의 활력과 생기를 되찾게 되며 제2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됨으로써 건강에도 힘쓰게 된다.

직장생활이라는 게 다 똑같지요. 남의 돈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다녔던 일과는 아주 다르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직장이라도 들어온 게 행운이지 만약에 일자리 없이 계속 있으면 병이라도 낫을 겁니다. (참여자 2)

이 나이에 직장이라도 다니니깐 건강을 더 챙기게 되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정말 좋아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 같아 좋아요. 민폐만 안 되면 오래 하고 싶죠. 일반 개인병원에서의 은퇴는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은 계속 지속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일이거든요. (참여자 4)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선교활동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있고... 그냥 나이 들어서 일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참여자 6)

3.4.2 건강관리에 힘쓰

참여자들은 재취업을 통하여 일하기 위해 쉬는 날에 스스로 운동을 챙겨서 하고 은퇴 이전 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더 챙기게 되고, 건강관리를 한다. 일을 통해 얻어지는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하여 초기 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더 원하였고, 일하기 위해 더욱더 건강관리에 힘쓰게 된다.

직장에 다닐 때는 늘 시간에 쫓겨 바둥대며 살았는데 지금은 몸이 아프면 일 못 하니까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오래 일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젊었을 때는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도 보장 못 하겠더라고요. (참여자 1)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일이 있으면 규칙적인 생활로 오히려 건강을 지키려고 더 노력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어 여가생활,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이 있고 건강하면 자식들에게 폐를 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여자 4)

3.4.3 자신감과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

참여자들은 재취업을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이나 수입을 통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존재감의 의미를 가지고 자식에게 의존하던 생각은 완전히 벗어나고 부모의 역할과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좀 더 떳떳하게 행동하게 되는 등 상실해왔던 자신감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게 된다. 또한, 은퇴 후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유사분야 창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존재감도 회복하게 된다.

은퇴해도 부서장 모임에 참석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나고서는 사람들과의 친분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 나이에 직장이라도 다니니까 부서장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아요. (참여자 4)

직장생활을 하다 사업을 하는 경우고, 간호학원이다 보니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라 경험도 없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했던 직업과 유사한 게 많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젊었을 때 생계수단이었던 교사 생활은 정말 살아가기 위한 절실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악마리같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지금은 생계수단이라기보다는 아직 사회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낸다는게 너무 허무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참여자 6)

4. 논의

본 연구에서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전체적인 과정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노인이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의 의미구조는 ‘의미 있는 삶을 다시 시작함’으로 나타났다.

은퇴란 인생 후반기의 가장 대표적인 전환기적 사건으로 공식적으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직업역할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되고 생활주기 상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되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주요 사건이다[23]. 하지만 초기 노인은 아직도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떠밀려 일에서 물러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고 아직도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은퇴 후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는 Jeong 등[13]과, Kim, Lee & Ahn[14]의 연구에서 고령자가 재취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필요 때문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Sung, Kim, & Kim[24]의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오히려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노인의 자존감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은퇴노인은 삶의 의미였던 일이 없으니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방향을 하게 되고 주어진 주업 없이 가정 내

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일없이 노는 배우자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잔소리를 하게 되므로 점차 부부간에 마찰이 증가하여 은퇴 이후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여유롭지 못하였다. 이는 Jeon[25]이 남편의 은퇴 후 경제적 부담 증가, 남편과 온종일 함께 있음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가족 구성원 간의 부조화 등이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초기 노인들은 은퇴 전 직장에서 일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은퇴 후 주어진 일없이 많은 시간을 무료해 하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직장에서 유지해오던 사회적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며 가족에게 버림목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삶의 의미를 잃어가게 된다. 이처럼 은퇴는 단순한 경제력 상실을 넘어서 자기존재감 상실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상실을 의미한다[26]. 따라서 은퇴를 어느 한 시점에 단발 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 은퇴 전부터 은퇴 당시,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의 과정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이는 연속체임을 알고 은퇴 후 짧은 시간 내에 은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은퇴를 위한 준비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은퇴 이후 삶의 의미였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으로 노인 취업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또한, 노인 근로여건의 열악함과 은퇴 전 일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무시하는 행동 등으로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익숙한 상급자 역할을 포기하고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와 나이 어린 상사를 모셔야 한다는 상황에 자존감이 저하되고 나이는 많지만 일의 어눌함으로 인해 직장 내 젊은 세대와의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Kim, Lee & Seo[26]의 연구에서 은퇴노인들이 단지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경력이나 현재의 능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몇 안 되는 열악한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직종에 대한 심한 심리적 저항과 함께 취업을 꺼리게 된다는 보고와도 유사하다. 이처럼 초기 노인들은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여성노인에게는 일자리 범위가 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저임금에도 안정성이 없고 노인이라 회피하는 근로여건의 어려움과 건

강하지 못하므로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재취업 후 새로운 직장에서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어 해고당하는 불안감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 전반이 건강한 은퇴 노인의 정립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한 건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일부 초기 노인들은 새로운 일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상사와의 신뢰가 형성되고 원만한 직장생활에 적응하게 된다.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권위나 체면으로 대우나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이전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번도시킴으로써 직장 내에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융화함으로써 재취업에 적응하게 된다. 이는 Kim[27]의 연구에서 지극히 불리한 취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을 낮추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라는 보고와 일치한다. 이처럼 초기 노인들은 재취업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다가가야 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초기 노인들은 무기력한 삶 속에서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즐거움과 수입을 통한 경제적인 여유로움으로 한동안 느껴보지 못한 삶의 활력과 생기를 되찾게 되며 제2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됨으로써 건강에 힘쓰게 되었다. 재취업을 통하여 일하기 위해 쉬는 날에 스스로 운동을 챙겨서 하고 은퇴 이전 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더 챙겨서 건강관리를 하며 일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생각이 더 건강해지게 함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초기 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원하였고 일을 위해 더욱더 건강관리에 힘쓰게 되었다.

또한, 재취업을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이나 수입을 통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존재감의 의미를 가지고 자식에게 의존하던 생각은 완전히 벗어버리게 된다. 부모의 역할과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좀 더 떳떳하게 행동하게 되는 등 상실해왔던 자신감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존재감도 회복하게 된다. 이는 Kim 등[28]의 연구에서 노년이 되어도 자식이나 주변인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였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게 사는 것이 노년에 중요하며, 이렇게 ‘즐겁게 활동하는 삶’이 노년에 복 있는 삶이라고 한 연구

결과와 의미가 통한다.

초기 노인의 은퇴는 대부분의 경우 일에 대한 지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은 다양한 사회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나 여가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준비된다면 새로운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리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Giorgi 현상학 방법을 통하여 은퇴 후 재취업에 대한 경험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은퇴 후 노인들의 생산성 증대, 여가 활용,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호에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C 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자노인 3명, 여성노인 2명으로 총 7명의 노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초기 은퇴 후 갈등과 시행착오가 많았던 초기 노인의 은퇴 후 재취업 경험은 '삶의 변화에 혼란스러움',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함', '새로운 변화에 적응함', '새로운 인생이 열림'으로 축약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재취업과 관련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간호실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는 임상에 국한되어 있는 지금까지의 업무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걸친 확장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간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간호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노인 은퇴자를 포함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시 은퇴 이후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지속적인 간호중재에 필요한 간호지침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평균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후 은퇴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재취업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퇴 후 재취업을 시도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의 재취업 경험을 연구하여 적응한 노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tatistical Korean. 2015 Elderly's Statistics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5 September 24],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8565
- [2] S. S. Le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s Against Aging and Possible Population Decrease. Policy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 September. Report no. : 11-1352000-001573-01.
- [3] S. H. Hong, S. M. Kim, H. Y. Kim,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s for Male Salary Workers - Focus on Perception and Solving of Life Problems",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4, no. 3 pp. 95-115, 2007.
- [4] M. A. Sung & S. W. Ok, "Life Attitude Patterns and Post - Retirement Adaptation among Men Retire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0, no. 1, pp. 1-21, 2002.
- [5] H. Y. Choi, "The Levels of Community-Residing Elderly's Successful Aging and Their Predictors: Focusing on Korean Concept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 24, no. 1, pp. 193-217, 2013. DOI: <https://doi.org/10.16881/jss.2013.01.24.1.193>
- [6] J. S. Kang,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Adaptation Process Related to Retirement for Elderly", Journal of Korean Elderly Society, vol. 28, no. 3, pp. 477-496, 2008.
- [7] Y. H. Kim,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aging acceptance of middle-aged men and women workers centering around narcissism and open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2005.
- [8] S. D. Hwang, "Qualitative Study on Korean Middle-aged Man's Process of Adaptation to Life after Early Retir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Gyeonggi-do. 2005.
- [9] Y. B. Ku,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on Depression in Early Retire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43, no. 2, pp. 253-275, 2009.
- [10] N. Y. Kim, S. H. Kim, E. H. Jeong, "The Study of the Experience and Life Process of Retired Elderly Men -

- Used the Grounded Theory Method”,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1, pp. 253-288, 2007.
- [11] M. H. Kim, H. J. Lee, M. K. Seo,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Job Seeking Experience of Korean Elderly Male Retirees Who Succeeded in Reemployment”,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1, pp. 123-142, 2008.
- [12] K. H. Park, “A Study to Classify the Type of Retirement Process among the Mature-aged in Korea -Focusing on Diversity and Inequ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2, no. 3, pp. 291-327, 2011.
- [13] G. H. Jeong, Y. H. Oh, J. E. Seok, C. W. Kim, E. Y. Kim, H. Y. Kim, “Survey of the Elderly Policy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May. Report No: 11-1352000-001426-12.
- [14] J. M. Kim, “Exploring Development Directions of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for Cultivating Vocational Competence of Older Adul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7, no. 1, pp. 728-739,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1.728>
- [15] S. H. Choi & G. H. Lee. “A Study of the Devices for Activating of Elderly Job Work”, Korean Journal of 21 Century Social Welfare, vol. 5, no. 1, pp. 199-221, 2008.
- [16] H. K. Lee, “An Analysis of Elderly Reemployment Activitie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vol. 11, pp. 87-118, 2001.
- [17] N. R. Hooyman & H. A. Kiyak, “Social Serontology 6th Edition”, Maryland: Allyn and Bacon; 2002.
- [18] J. K. Gu & J. H. Park. “A Study on the Elderly Employment in Aging Society”, Corporate Management Research, vol. 44, pp. 157-173, 2012.
- [19] K. S. Park,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will and re-employment of the elderly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6 pp. 3845-3857,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6.3845>
- [20] H. J. Kim & K. S. Yoo, “Determinants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Workers”,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no. 2, pp. 97-110, 2004.
- [21] A. Giorgi,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Korean Qualitative Research Center(ed.), Symposium of Nursing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Korean Qualitative Research Center. 2004.
- [22] Y. S. Lincoln &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1985.
- [23] H. S. Shin & S. J. Lee, “The Effect of Family Resources and Influencing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Men Retire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hips, vol. 12, no. 2, pp. 197-213, 2007.
- [24] O. K. Soung, Y. K. Kim, K. H. Kim, “The Meaning of Self-esteem in the Elderly”,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3, no. 2, pp. 158-167, 2012.
- [25] H. O. Jeon,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Women’s Adaptation Experience with Their Retired Husband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9, no. 2, pp. 120-128, 2008.
- [26] M. H. Kim, H. J. Lee, M. K. Seo,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Job Seeking Experience of Koran Elderly Male Retirees Who Succeeded in Reemployment”,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1, pp. 123-142, 2008.
- [27] Y. J. Kim, “A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n Successful Aging of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3, pp. 567-583, 2008.
- [28] J. S. Kim, S. J. Gong, H. S. Kim, Y. H. Rho, Kim O. H. Kim, K. S. Par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lderly’s Life of Blis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7, no. 1, pp. 39-55, 2006.

여형남(Hyeong-Nam Yeo)

[정회원]



- 2008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노인전공) 석사
- 2015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성인전공)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성인간호, 질적연구

김영경(KimYeong-Kyeong)

[정회원]



- 1973년 3월 ~ 1977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사
- 1980년 3월 ~ 1982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석사(MA)
- 1984년 9월 ~ 199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이학박사(Ph. D)
- 198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성인간호, 질적연구